

농림부는 '97년 7월부터 농산물 수입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고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 29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원산지 표시 위치와 방법도 가공제조 및 판매업체가 표시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 원산지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시기준이나 방법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작년 7월부터 농산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으로부터 국내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공·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국립농산물검사소 등 관계기관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보완·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상품목 추가, 표시방법 개정,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도를 개선하여 '9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수입량이 많고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크고 소비자의 관심이 큰 농산물 위주로 원산지표시

올1월부터 달라진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29개품목 추가, 표시방법 개선, 벌칙강화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농산물 추가품목(5개) : 홍화씨, 치커리, 고본, 소엽, 형개

△가공품 추가품목(24개) : 닭고기, 닭가슴살, 떡류, 조제유류, 이우식료 등

◆원산지표시방법의 개선

가공업체, 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편의도모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치, 표시방법 및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별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될 경우 종전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변경범위를 개정하였다.

△현재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식품표시기준에 의한 "원료 및 함량"란에 표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동란에 원산지표시가 어려운 경우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포장전면"에도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표시는 꽃말, 인쇄,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표시가 일

반화됨에 따라 라벨지에 의한 원산지 표시도 허용토록 하였다.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가공품의 경우 원료농산물의 작황 등 원료수급사정으로 원산지별 배합비율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현재는 원산지별 배합비율이 20%이내에서 변경될 경우 남아있는 종전 포장재에 한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 배합비를 변경범위를 30%로 확대하여 원산지별 배합비를 변경에 따른 포장재 변경부담을 완화하였다.

◆원산지표시 가공품의 정의 명확화

또한,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 가공품중 일부 대상품목이 식품공전에 의한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료 농산물에 따른 대상품목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가공품류, 식육제품류,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원료 농산물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재정하였다.

△현행 우유류, 저지방 우유류,

분유류 → 원유를 원료로한 제품

△현행 백삼, 홍삼, 태극삼 → 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벌칙 강화

△표시기준·방법 위반시 : 미표시 과태료 기준금액(3~1,000만원)의 1/2을 부과한다.

△상습위반시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배이내에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재고포장재의 원활한 소진 등을 위해 '98.12.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였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 기준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하여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미표시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표시기준·표시방법 위반사항 적발시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2회이상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종과기준이 없었으나 미표시 과태료부과금액의 2배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도기간 설정

동 추가품목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1년간으로 충분히 설정하여 동 품목의 재고 포장재를 원활히 소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율 조사

아울러, '97년 후반에 원산지표시 이행을 소비자단체(소비자문제연구원)는 시민의모임 주관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의 백화점, 쇼핑센터, 슈퍼체인점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개 품목, 가공품 69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행율은 91.4%로 원산지표시제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소별 이행율은 편의점과 백화점이 93.3%로 가장 높고,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내 소매점이 각각 84.1%, 86.7%였으며 노점상은 66.9%로 가장 낮은 이행율 보였으며, 전체평균 이행율은 91.4%였다.

농림추경예산 15% 삭감 검토

농가자금지원·재해예방 및 방역비등 주요 구조개선사업은 축소규모 최소화

농림부는 IMF사태와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10조원 정도를 삭감해야 하는 추경방침에 따라 올해 수립한 사업비 예산의 15% 수준인 9천9백57억원 규모를 삭감하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98년 추경예산은 지난해 예산(7조3천1백7억원)에 비해서도 3천3백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농림부는 또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등 기금사업도 6천억원 규모를 축소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예산감축분야는 97년도 부진사업과 신규시설 설치사업, 장기계속사업, 농특세 사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일반경지정리는 97년 가을착수면적을 감안, 축소조정하고, 도매시장과 물류센터 등 자연사업은 필요요소만 반영하며, 농기계 구입자금은 수요감소를 고려, 대폭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유리온실과 축사 신규설치는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농업·축산경영자금,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농산물 수출지원 등과 같이 농업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재해예방과 방역예산 등은 삭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용수개발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주요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축소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가 검토중인 98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6천2백9억원에서 1천7백4억원이 줄어들며, 새만금 방조제사업비중 4백96억원을포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비 6백64억원이 삭감된다.

또 농기계구입자금은 2천6백70억원중에서 5백47억원, 과일·채소·시설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는 총 1천6백55억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은 5백50억원중 1백58억원을, 미곡종합처리장은 1천5백48억원중 1백92억원,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은 4백31억원중 1백96억원을 각각 줄일 방침이다.(농수축산신문 : 98/1/22)

양봉회관건립추진위 성금모금현황

△한국양봉과학연구소장 우건석 교수께서 1백8십만원 △본협회 고문 조도행 선생께서 5십만원을 회관건립기금에 보태달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회관건립추진위 발기서명인 ◇김희성 이사 ◇석정갑 이사 ◇이신호 전북지회장 ◇한성우 경남지회장 이상 4분께서 각각 약속한 성금을 추진위계좌로 납입하였습니다. 발기인 20인중 13명(65%)이 약속이행했습니다.(본보 1월호 발표 이후임)

발 표 일	성금 납입내역	금 액
'98. 1. 1	양봉협회보 1월호 발표총액	20,500,000
'98. 2. 1	김희성(본협이사)	1,000,000
	석정갑(본협이사)	1,000,000
	양봉과학연구소(소장 우건석)	1,800,000
	이신호(전북지회장)	500,000
	한성우(경남지회장)	500,000
	조도행(본협고문)	500,000
	답지된 성금 총액	25,800,000

효능이나 기호성에서 자연화분을 능가하는 신제품!



락티알부민대용화분

폴벌표 Lactalbumin Pollen Substitutes®

1년묵은 자연화분보다 봉아 육성면적이 월등한 락티알부민에 자연화분 12%와 비타민C 및 천연칼슘을 첨가하고 특히 유기산을 배합하여 육아에 절대 필수인 육아봉의 봉유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상적인 대용화분이다.



강원밀농원

☎220-031 원주시 학성1동 436-4 (역전)

☎(0371) 42-3737 · 45-3737 FAX 731-3737

양봉을 밀바탕으로 기업화한 저희 업체가 수입개방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식품유통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봉산물 가공유통업자

(주)꽃샘종합식품

Kkoch Shaem General Food Co. Ltd

대표이사 이 상 갑

힘들여 생산한 벌꿀을 비롯한 양봉산물의 소중함,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공유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군 소흘읍 이가팔리 240

☎(0357)541-9921 ~ 2. 팩스 541-9933